

정찬주 장편역사소설

깨달음의 빛, 청자

천년비원을 품은
강진청자 이야기

신라 말 탐진인 장보고는 중국 월주청자 기술을 강진에 들여온다.
이후 고려시대의 강진도공들은 고려청자를 천하제일의 비색으로
승화 발전시킨다. 마침내 강진은 세계적인 청자의 성지가 된다.



강진군
GANGJINCITY

탐진의 첫 청자도공

셋바람이 강하게 부는 데다 장맛비까지 내려 장보고의 장삿배는 당은포에서 정박했다. 항해하는 데는 장맛비보다 셋바람이 더 장애가 되었다. 적산포에서 온 신라 청자도공들은 모두 선실로 들어가 비를 피했다. 선실이 좁아 모두들 새우처럼 다닥다닥 웅크렸다. 셋바람이 잦아들고 마파람이 부는 계절인데 예상치 못한 날씨였다. 선장은 우두머리 공사에게 셋바람이 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탐진으로 떠나겠다고 말했다.

“아래로 갈수록 에렵다 카이. 마도 물살을 알봤다가는 큰일 난데이. 거그 바다는 미쳐 날뛰는 때가 많다, 아이가.”

마도바다의 와류(渦流)에 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경고였다. 와류란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조류를 일컫는 말이었다. 배가 와류에 갇히면 침몰할 수도 있었다. 실제로 마도바다를 오가는 중에 침몰하는 배가 적잖은 것도 사실이었다. 애가 타는 사람들은 월주에서 온 신라인 도공들이었다. 탐진 출신인 최녹천과 김보, 고방인은 월주가마에서 한 주인 밑에 일했던 인연으로 늘 함께 움직였다. 김보는 해남, 고방인은

부안이 고향이었다. 세 사람 모두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해초를 뜯으며 살았던 보자기, 즉 해상유랑민 출신들이었다. 세 사람은 적산으로 올라와서도 그랬고, 장보고의 장삿배를 탈 때까지 서로가 의지하면서 지냈다. 고방인이 말했다.

“나는 여그서 더 지달리기보담 걸어서라도 부안으로 내려갈라네.”

“혼자만 몬자 떨어져 갈라고?”

최녹천이 고방인을 쳐다보며 말했다. 당은포에서 부안은 가깝지만 탐진은 너무 멀었던 것이다. 그러자 김보가 말했다.

“방인이 말도 맞는 거 같으네. 여그서 은제까정 요로코름 있을지 모른께 비를 쫓딱 맞드라도 나서는 것이 좋겄네.”

해남과 탐진은 지근 거리였다. 월출산 고개 하나만 넘으면 탐진이었다. 그러나 최녹천은 두 사람처럼 배를 내릴 수 없었다. 최녹천이 두 사람에게 사정했다.

“이틀만 더 지달려 보세. 셋바람이나 비가 그칠지 모른께 말이여.”

“늦은 장맛비가 더 감푼 뱀이네. 내가 볼 때는 메칠 더 갈 거 같으네.”

김보는 혼자만 남게 되는 최녹천에게 미안했던지 이틀만 배에서 더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여그까정 함께 했는디 하룻밤이나 이틀을 못 참겼는가? 방인이 쪼간 더 지달려보세.”

“알았네. 근디 녹천이 자네는 뭇 땀시 배를 꼭 타고 갈라고 헌가?”

“시방 이 배는 탐진토기를 실러 가는디 거그까정 함께 감시로 내가 도울 것이 있으믄 도와줘야 도리가 아니겠는가? 내 고향이 탐진이라서 그라네.”

“자네는 그라네만 나는 하루라도 싸게 가고 잤아서 못 살겠네.”

“나는 더 늦어지드라도 장삿배를 타고 갈라네.”

“으쨌든 우리는 녹천이 자네허고 정도 들었고 허니 이틀만 더 지달려 볼라네.”

“내가 탐진까정 배를 타고 갈라고 헌 이유가 또 있네.”

“고것은 뭇인가?”

“대사님허고 대사님 동상 편지를 갖고 가네. 편지가 비에 젖어불믄 으쨌겠는가? 우리덜을 여그까정 보내준 분이 대사님이 아닌가.”

최녹천의 품속에는 두 장의 편지가 있었다. 장보고와 정년이 정 족장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뿔이라고 써 있든가?”

“자네덜이나 나는 까막눈인디 어처케 알겠는가? 잘 있는게 걱정허지 말라는 말씀이겠지 머.”



셋바람이 강해졌는지 배가 뒤뚱거렸다. 세 사람은 선실에서 이리저리 휩쓸렸다. 선장과 우두머리 공사는 당은포 치소 객사로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당은포 치소 향리는 별세한 김시방 촌장 때부터 관계가 좋았으므로 장보고의 장삿배 선장이나 공사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이틀 후.

장맛비는 오는 등 마는 등 했지만 셋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었다. 결국 고방인과 김보는 선원과 공사들에게 인사한 뒤 배를 떠났다. 두 사람이 떠나자 눈치만 보고 있던 다른 도공들도 모두 배에서 내려 흩어졌다. 선장은 도공들을 붙잡지 않았다. 신라에 왔으니 자신의 의무는 다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오히려 선장은 도공들이 빨리 떠나주기를 바랐던 속내도 있었다. 입을 하나라도 덜수록 선실 창고의 식량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선장이 뿔뿔이 사라지는 도공들을 보고는 한 마디했다.

“당은포 치소에서 식량을 구하지 않아도 되겠데이.”

“지도 배에서 내려붙기를 바랐습니까요?”

최녹천이 웃으며 말하자 선장이 고개를 크게 저었다.

“아닐세. 자네는 탐진까지 가야 할 사람이데이. 나는 탐진이 처음인가. 지리를 잘 모르니 자네 도움을 받아야 한데이.”

“우두머리 돛잡이나 노잡이 성님덜이 지리에 훤히 것이지라우.”

“그렇다 카더라도 탐진 사람이 더 잘 알지 않겠나.”

선장의 판단은 옳았다. 돛잡이나 노잡이들은 탐진 구석구석을 최녹천 만큼 알지 못했다. 최녹천은 어린 시절부터 보자기가 된 이후 탐진 바닷가를 옮겨 다니면서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 암초가 있는지 정확히

알았다. 선장은 틈만 나면 최녹천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시켰다.

“자네는 월주까지 어처케 갔노?”

“바닷가에서 혼자 갯것을 찾다가 당구덜에게 붙잡혀 월주까정 갔그만요.”

“가마주인은 어떤 사람이었노?”

“우리덜을 자주 굶겼던 안주인허고 달리 그래도 주인은 괴않잖은 사람이었지라우. 청자가 잘 나오믄 잠을 푹 자게도 했지라우.”

“잠도 못 자게 한 기가.”

“잠 잘 시간이 읊었지라우. 기물을 맹글고 말리고 다듬고 허다보믄 하루가 금방 지나볼지라우. 불을 안 때는 가마를 보수허거나 가마 나무하러 상림호 산자락을 발톱이 빠져볼도록 오르락내리락 했당께요.”

최녹천이 선장에게 손을 보여주었다. 손가락마다 굳은살이 박혀 마치 장갑을 끼고 있는 것처럼 거칠었다.

“그래도 청자 맹그는 기술은 확실하게 배웠다 카이.”

“진짜 중요헌 기술은 안 갈치드라고요.”

“그것은 뭐꼬?”

“청자유약 맹그는 뵈이그만요. 대사님이 탐진에 청자기술을 전허라고 했는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그만요.”

“눈치껏 배우지 그랬노.”

“월주가마 주인덜이 을매나 의뭉헌지 압니까요? 청자유약 맹글 때는 신라 도공덜은 근처에 얼씬도 못허게 했지라우. 근디 조개를 숯불에 구웠다가 돌절구에 밀가리멧기로 찜는 것은 봤그만요.”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 같데이.”

“지도 엉간히 눈치는 췌지라우. 조개가리가 청자유약 재료일 것 같드랑께요.”

선장이 말머리를 돌렸다.

“월주 청자가 왕실이나 귀족한테만 간다꼬 하던데 우째서 그럴까? 혹시 자네가 들은 것이 있는기고.”

“지도 곰곰이 생각해 봤지라우. 으편 월주가마 주인이 황실에서 문자 요구해서 청자를 맹글었다는 말도 한 적이 있고라우.”

“반다시 이유가 있을끼네.”

“있지라우. 주인이 현 말이 생각나그만요.”

최녹천은 기억을 되살려 선장에게 이야기해주었다. 황실이나 귀족들이 천제를 지낼 때는 반드시 옥빛이 나는 신비한 빛깔의 청동기물을 당나라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해왔는데, 그것들의 문제점이 하나 둘 드러났다는 것이었다. 청동기물은 녹이 잘 슬어 자주 닦아야 했는데, 청동

항아리나 청동술병, 청동물병 등은 그 속의 녹까지는 제거할 수 없는 문제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청동기물은 췌덩어리였으므로 토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다. 그래서 황실이나 귀족들이 가마를 관장하는 자계 치소에 청색이 나는 도자기를 주문했고, 따라서 월주가마에서 청자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 최녹천의 기억이었다.

“알겠데이. 황실이나 귀족이 청색을 신성하게 여겨갖고 청자를 주문했을끼다.”

선장은 최녹천의 이야기를 듣고 월주청자가 만들어진 배경을 나름대로 이해했다. 최녹천은 월주청자에 대한 장보고의 생각도 전했다.

“대사님은 당 황실허고 생각이 다르시드그만요. 황실에서 청자는 신성한 것인께 일반 양민덜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허지만 말입니다요.”

“대사님이 자네헌데 청자를 맨들라꼬 헌 이유가 있을 것이네.”

“무신 이윤디요?”

선장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대사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지 았아갖꼬 정확하게 모르지만서도 아마 큰 장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데이.”

“청자를 당 양민덜에게 풀고 쫓다는 말썸을 허신 적은 있지라우.”

“장사를 할라든 큰 나라에서 해야 크게 벌지 않겠나?”

“그리고 봉께 대사님 속은 참말로 짚그만요.”

최녹천은 선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자신이 월주에 있으면서 청자만 만들 줄만 알았지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장삿배는 사흘 후, 가리포를 돌아 미산포로 향했다. 미산포가 가까워지자 선원들이 민첩하게 움직였다. 돛잡이는 마과람을 받고자 돛목을 수평으로 바로잡고, 키잡이는 배가 가는 방향으로 일(一)자를 견지했다. 닻잡이도 감은 닻줄을 이리저리 점검했다. 궁사들은 선두와 선미, 배의 좌현과 우현에 정위치를 했다. 장삿배가 굴강에 도착하자마자 미산포 별장이 올라와 검문했다. 최녹천은 눈에 익은 풍경을 보자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보자기 시절에 미산포 위아래 바닷가를 자주 와봤던 것이다. 별장은 최녹천을 수상하게 여기고 다가왔다.

“자네는 선원이 아닌 거 같그만.”

“원래는 탐진에 살았는데 장보고 대사님 지시로 왔어라우.”

별장이 장보고라는 말에 태도를 누그러뜨렸다. 장보고의 명성은 미산포 까지도 알려져 있었다.

“무신 지시를 받고 왔는가?”

“정 족장님께 전할 편지를 갖고 왔그만요. 정년 군관님 편지도 갖고 왔고라우.”

정년을 들먹이자 별장이 미소를 띠었다.

“정년은 동상 같은 사람이제. 향리 나리께 함께 무술을 배운 적이 있다네.”

별장이 군사 하나를 불러 최녹천을 정 족장 집에 데려다주라고 지시했다. 군사가 말을 한 마리 가져오더니 자신이 말에 먼저 올라탄 뒤 최녹천에게 손을 내밀었다. 말을 타본 적이 없는 최녹천은 군마 등에 겨우 올라가 군사의 허리를 붙잡았다. 군사는 무뚝뚝했다. 미산포를 떠나 냇가 옆 오솔길에 들어설 때까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최녹천은 처음 가보는 곳이어서 두리번거리며 눈길을 주었다. 내는 물이 병병했다. 장마가 끝났지만 냇물은 아직도 흙탕물이었다. 냇가 양 옆으로는 대숲이 군데군데 우거져 있었다. 군사가 겨우 한 마디 했다.

“쩌그 저 집이 정 족장님 사시는 디요.”

“으디라고요?”

“마실 초입에 초가 네 채가 보이지라? 그 집이요.”

군사는 더 이상 가지 않겠다는 듯이 말고삐를 잡아당기고 있었다. 최녹천은 말등에서 뛰어내리다시피 했다. 군사는 최녹천이 고맙다는 말을 할 사이도 없이 쏜살같이 대숲 너머로 사라졌다.



최녹천은 군사가 가리킨 대로 마을 초입의 큰 집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마침 나뭇짐을 한가득 지게에 지고 사립문 안으로 들어가려던 지게꾼이 말했다.

“누구를 찾는게라우?”

“족장님은 거시요? 멀리서 왔소.”

지게꾼은 행색으로 보아 노비 같았다.

“지는 족장님 집에서 잡일하는 사람이그만요. 지달려보시지라우.”

잠시 후 정 족장이 나왔다. 최녹천이 장보고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고 하자 반색하며 반겼다. 육십대 노인인 정 족장의 턱수염은 염소 털 같았다.

“얼른 올라오게.”

최녹천은 마루에 오르자마자 정 족장에게 큰절을 했다. 그런 뒤 품속에서 봉투 두 개를 꺼내 정 족장에게 주었다. 정 족장은 장보고의 편지부터 읽었다. 편지를 보면서 최녹천에게 눈길을 주었다가 거두었다.

“자네가 탐진사람인디 월주까지 가서 도공을 했다고?”

“예, 사실이그만요.”

“집은 탐진 으딘가?”

“보자기라 집은 읍고, 당구덜에게 붙잡혀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부렸그만요.”

“장 대사가 자네를 텔꼬 있으믄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편지에 썼는디 그게 뭇인지 나는 잘 모르겄네.”

“지가 혈 줄 아는 것은 청자를 맵그는 것밖에 읊어라우. 여그서도 청자를 맵그는지 모르겠습니다요.”

“여그 도공덜은 아직 청자를 모르네. 청자가 어처케 생겼는지 구경도 못헌 도공이 있을 것이네.”

“우리 집에 살아볼 생각은 있는가?”

“아이고메, 지를 식구로 거뉘주시믄 고맙지라우.”

“장 대사의 간곡헌 부탁이네. 자네를 텔꼬 있음시로 우리 가마에서도 반다시 청자를 맵글라고 말이네.”

“대사님은 지를 탐진으로 오게 허신 은인이시지라우. 근디 어처케 은인의 부탁을 모른 체 허졌습니다까요. 지는 목심이 다허는 날까정 대사님 당부대로 청자를 맵글다가 죽을라요.”

“허허허. 자네는 청자가 아니라도 인간성이 돼부렀구만. 장 대사가 말헌 당부를 죽을 때까정 지키겠다고 허는 것을 보니 말이여. 자네 이름은 뭇인가?”

“최녹천이라고 합니다요.”

정 족장이 중얼거렸다.

“녹천이라. 녹천이라...”

여름의 문턱에 선 투명한 하늘과 산자락은 옅은 갈맷빛 일색이었다. 구름 한 점 없는 부드러운 하늘빛도, 신록이 녹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천개산 산자락도 탐진바다처럼 푸른색이었다. 정족장이 허공에 눈길을 한 번 주고 난 뒤 말했다.

“자네는 천상 청자를 맹글고 살 사람이네. 녹천이란 푸를 녹(綠)자에 하늘 천(天)자, 푸른 하늘이 아닌가.”

“이이고메, 지는 지 이름 뜻도 몰라불고 살았그만요. 족장님 고맙습니다요.”

정 족장은 아들 정년이 보낸 편지는 그 자리에서 보지 않고 품속에 넣었다. 정 족장이 좀 전의 보았던 노비를 불렀다.

“여그 손님에게 저 짝 방 하나를 내줘라.”

정 족장은 아들 정년이 보낸 편지를 차마 바로 읽지를 못했다. 최녹천 앞에서 눈물을 보일지도 몰랐던 것이다. 최녹천에게서 정년의 편지를 건네받았을 때 갑자기 손을 떨었던 것이다. 정 족장은 최녹천이 일어서자 바로 사랑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계속>